2003년 한 해를 돌아보며

이해동 목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한 해가 또 기울고 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이해도 부푼 기대를 안고 시작했었는데 허전함과 아쉬움으로 한 해의 끝을 맞이하고 있다.

시작할 때는 맑은 하늘처럼 파란 색깔이었는데 지금은 먹구름과 짙은 안개로 뒤덮여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렵고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예측할 수 없는 잿빛 상황이다.

우리는 2003년을 들뜬 기분으로 맞이했다. 작년 12월 18일에 있었던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많은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따라서 거기에 거는 기대도 크고 야무질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2002년을 마감하고 2003년 새해를 맞았으니 온 국민이 새해에 거는 기대는 곧 노무현 정부에 거는 기대일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치가 크고 높고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 또한 더욱 커지는 법이다.

축제 분위기로 맞은 2003년

애당초 참여정부에 대한 우리들의 기대가 너무 낭만적이었던 것 같다. 참여정부를 이끌고 있는 정부당국자들도 그러했고, 참여정부의 탄생을 기뻐하고 성공을 바라는 지지 세력도 그랬던 것이 아니었을까? 대내적으로는 거대야당이 공격할 기회만 노리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부시가 이끄는 무지막지한 미국의 패권주의가 압력을 가해오리라는 냉혹한 현실을 미처 계산에 넣지 않고 막연한 낙관에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문제는 대북 송금관계 특검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고 보인다. 반세기 동안이나 얼어붙어 굳게 잠겨있던 남북관계의 빗장을 열기 위한 고도의 민족사적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버림으로써 국민들의 생각에 혼란스러움을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 현대비자금 문제가 불거졌고, 마침내 재벌 총수인 현대 정몽헌 회장이 투신자살하는 비극적 사태까지 빚어졌다. 그리고 남북문제를 두고 우리 사회에 보혁갈등이 반이성적이고 몰이성적으로 한층 더 표면화되고 노골화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층이 상당부분 이탈함으로써 권력기반이 더욱 엷어지는 안타까운 현상이 되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어지럽다. 현기증이 난다는 말이다. 어느 것 하나 시원스럽게 풀리는 것이 없다. 경제성장률은 저조하고 실업률은 높아지며 소비가 위축되어 저마다 아우성이다. 이익집단들 사이의 집단이기주의나 지역이기주의로 말미암은 갈등은 피차간 조정능력을 상실했다. 노조간부들이 자살하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자살하며, 6년 동안이나 사라졌던 화염병이 서울 한복판 종로에서 터지고,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로 부안 군민들은 극한투쟁을 하고 있다. 이라크 파병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있으며, 대선자금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문제로 정가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이전투구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열 달 만에 재신임을 묻겠다는 극약처방까지 나와 있다. 정말 어지럽다.

모두 함께 살길을 찾아야

그럼 어찌할꼬! 우리 모두 함께 살길을 찾아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범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도 있다. 너는 죽고 나만 살자든지, 너 죽고 나 죽자는 방식으로는 공멸이다. 여야, 노사, 지역 할 것 없이 세운 핏발을 풀어야 한다. 양파껍질을 다 벗겨내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서로 감정과 이권과 힘을 절제하고 자제하자. 그리고 상생의 길을 찾자. 굳어진 몸에 힘을 빼고 유연하게 살길을 찾아 새해를 맞자.